
방통위 MWC 2015 출장 결과

-
- ◆ 기 간 : '15. 3. 1(일) ~ 3. 7(토)
 - ◆ 방문지역 :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

2015. 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통위 MWC 2015 출장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인 MWC (Mobile World Congress)를 방문하여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이동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
- 아리랑TV 등 우리 방송의 스페인 진출을 지원하고, 영국·스페인·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MWC(Mobile World Congress) 개요 >

- 개요 :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이동·정보통신 산업 전문 전시회
- 주최 :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 일정·장소 : '15.3.2(월)~3.5(목),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행사장
- 참가규모 : 각국 장·차관 및 관련 업계 CEO를 포함한 200여개국 대표와 약 1,800개의 업체(이동통신 사업자, 장비업체 등) 참여
- 전시품목 : 이동통신 제품전반, 모바일서비스, 휴대폰용 임베디드 솔루션 등

□ 출장 국가 및 기간

- 출장 국가 : 영국(런던),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프랑스(파리)
- 출장 기간 : 2015. 3. 1(일) ~ 3. 7(토), 5박 7일

□ 주요 활동

방문지	주요 활동
런던 (3.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yUK 이사 및 Freesat 최고 경영자 면담 ○ 영국 Ofcom 위원장 면담
바르셀로나 (3.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FCC 위원장 면담 ○ 멕시코 IFT(연방통신기구) 위원 면담 ○ MWC 전시회 국내외 참여기업 간담회 및 전시 참관
마드리드 (3.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dio y Televisión Española 사장 면담 ○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차관 면담
파리 (3.6~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대사 면담 ○ 프랑스 CSA 위원장 면담

대표단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영 문)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KCC)	위원장	최성준 (Choi, Sung Joon)	
	방송정책기획과장	양한열 (Yang, Han Yeol)	
	개인정보보호과장	엄 열 (Uhm, Yul)	
	홍보협력담당관	배춘환 (Bae, Choon Hwan)	
	국제협력팀장	박명진 (Park, Myung Jin)	
	수행비서	권영재 (Kwon, Young Jae)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유인설 (Yoo, In Sul)	
	국제협력팀 주무관	이선아 (Yi, Seon A)	
	국제협력팀 주무관	장좌영 (Jang, Jwa Young)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팀장	정원기 (Chung, Won Ki)	
	주임연구원	임준옥 (Lim, Jun Ok)	
외 부	통역사	김계형 (Kim, Kye Hyung)	

영국 SkyUK 방문 및 면담

- 일시 /장소 : '15.3.2 11:00~12:00, SkyUK 내 회의실(런던)
- 면담자 : 닉 그레고리 SkyUK 이사 등

< SkyUK 개요 >

- o Sky UK (BskyB)는 '90년 11월에 BSB(British Satellite Broadcasting)사와 Sky Television의 합병으로 설립된 영국 최대의 유료TV 서비스 제공 사업자
- 위성TV 서비스, IPTV, VOD 서비스와 ADSL, DSL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

o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법상 Sky의 의무, 아리랑TV의 영국 론칭, 뉴미디어 분야 경쟁 전략, 모바일TV 서비스 등을 질의
- 닉 그레고리 이사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할 Sky의 의무, 기술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아리랑TV의 영국 론칭,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로 구축해 온 콘텐츠 유통 체계, 'Sky Go' 앱을 이용한 모바일TV 서비스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방송법상 Sky의 의무】

- o Sky는 오픈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영국의 통신법에 따라 콘텐츠를 방송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그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재 Sky는 600여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Sky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 및 방영하는 채널은 절반 정도이며, 나머지는 NHK World, Russia Today 등과 같은 제3자에게 할당됨

【아리랑TV의 영국 론칭】

- o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안에 아리랑 TV의 영국 론칭이 이루어질 것임

【뉴미디어 분야 경쟁 전략】

- o Netflix 등과 같은 해외의 유료사업자의 영국 진출과 관련하여, Sky는 설립 초기부터 위성, 인터넷, OTT,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유통 체계를 구축해 음
 - 현재 영국 전역에 보급된 약 800만 대의 Sky OTT 셋톱박스를 통해 생방송 스트리밍 등 IP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Sky Store’ 앱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 중
 - 약 2년 반 전에 시작된 모바일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인 ‘Now TV’는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Sky의 위성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까지 흡수

【모바일TV 서비스】

- 현재 Sky는 ‘Sky Go’ 앱을 이용한 모바일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아리랑TV가 Sky를 통해 영국 내에 방송된다면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모바일TV로도 서비스될 것임

【 방문 및 면담 사진 】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기념사진>

영국 Freesat 방문 및 면담

- 일시 /장소 : '15.3.2 14:30~15:00, Freesat 내 회의실(런던)
- 면담자 : 알리스탈 쏘 Freesat 대표 등

< Freesat 개요 >

- o Freesat은 영국 BBC와 ITV 간의 디지털 위성방송사로 수신기 구매 없이 무료로 위성방송 서비스 실시
- '09년도부터 HD 방송을 개시하고 있으며, 최근 아마존 App Store를 통해 Freesa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Freesat의 비전, 이익 창출 모델, 지상파TV 재송신료 문제, 경쟁력 유지 비결, 주요 시청계층 등을 질의
- 알리스탈 쏘 대표는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라는 Freesat의 비전, 플랫폼 사용료 및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수입구조,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재송신료 문제 해결, 소비자 취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유지되는 경쟁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Freesat의 시청계층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Freesat의 비전과 성공】

- o Freesat의 비전은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임
- Freesat의 성공 배경은 휴맥스, 삼성 등 다양한 셋톱박스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가격대의 서비스 제공을 꼽을 수 있음
- 아울러 시청자에게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공급 중이며, 특히 뉴스의 경우 세계 각지의 소식을 알리고 있음. 뉴스 부문에서 아리랑 TV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함

【이익 창출 모델】

- Freesat의 이익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창출되는데 첫째, 콘텐츠 공급자로부터의 플랫폼 사용료, 둘째 BBC와 ITV*로부터의 재정 지원임
- * ITV(Independent Television, 독립 텔레비전): 영국 최대의 민간방송국으로, 1955년 9월 22일에 방송을 개시. 법률상 명칭은 'Channel 3'이며, 채널은 ITV, ITV2, ITV3, ITV4, ITVBe, ITV Encore, CITV로 나뉨
- 이 외의 모델은 현재 연구 중이며 거둬들이는 이익은 보다 개선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계획

【지상파TV 재송신료 문제】

- 재송신료 문제는 유·무료 제공 여부, 기존 방송과 뉴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등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음
- BBC와 Sky 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음
- 현재 콘텐츠 공급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Ofcom의 규제 영역임

【경쟁력 유지 비결】

- 일부 시청자들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유료 채널에 가입 하기도 하지만, 60~70%의 시청자들은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받길 원함
- Freesat은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청률 패턴, 프로그램 선호도 등 소비자의 취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쟁력 유지의 중요한 비결임
- 나아가 확보된 가입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

【주요 시청계층】

- Freesat은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폭넓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이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음
 - 다른 채널의 기본 가격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사를 해서 거주지를 옮긴 경우 Freesat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음
 -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Freetime’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가입자 수가 약 50만 명 증가하기도 함

【콘텐츠 확보 수단】

- 시청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들을 발굴하고 협의함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반응】

- 영국의 시청자들은 주로 CCTV, NHK 등의 아시아 채널들을 통해서 그 곳의 뉴스와 문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임

【수신기 설치 지원】

- 이미 영국에는 위성 수신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제조업체측에서 구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대신 설치해 줌
 - Freesat 콜센터에서는 시청자가 수신기 설치에 관해서 문의할 경우 소매업체를 연결해 주기도 함

【Freesat from Sky와의 차별점】

- ‘Freesat’과 ‘Freesat from Sky’는 전혀 다른 플랫폼으로서 Freesat from Sky는 Sky가입자가 원할 경우 제공되는 유료 부가 서비스로 알고 있음
 - Freesat은 Freesat from Sky에 비해 더욱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도 우위로 나타남

【 방문 및 면담 사진 】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후 기념촬영>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 방문 및 면담

- 일시 /장소 : '15.3.2 16:00~17:00, Ofcom 내 회의실(런던)
- 면담자 : 패트리샤 호지슨 Ofcom 위원장 등

< Ofcom 개요 >

-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는 '03년 12월 기존의 방송 및 통신 분야의 5개 독립 기관들이 통합되어 설립된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 ※ 통합기관 : 방송기준위원회, 독립텔레비전위원회, 라디오위원회, 통신위원회, 무선통신국
 - 전자통신 및 방송 시장의 규제 및 감독, 주파수 계획 및 할당 등을 담당
- 위원회 멤버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부서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각각 시장 개발, 소비자 보호, 콘텐츠 규격, 소비자 정책 등을 담당

○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Ofcom의 주요 업무, 트래픽 관리 문제, 뉴미디어 시청 점유율 산정, 지상파TV 재송신료 분쟁 등을 질의
- 패트리샤 호지슨 위원장은 방송통신 인프라 접근성 강화 등 Ofcom의 업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트래픽 관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뉴미디어 시청 점유율 산정, 아직 본격적 논의가 없는 재송신료 관련 논의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Ofcom의 주요 업무】

- Ofcom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방송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러한 목표가 성공적이었음

- 특히 Sky의 BT(British Telecom) 이용, 케이블TV 가입자 수 증가, 광케이블망 업그레이드, 4대 이동통신 사업자 보유 등이 대표적 성공 사례임
- 방송 사업자인 Sky는 브로드밴드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인 BT는 방송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또한, 기존 4개의 이동통신사가 2개로 재편될 예정
- 향후에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책 상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해외의 사례에서 배우려 노력하고 있음

【트래픽 관리 문제】

- 네트워크의 트래픽 관리는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트래픽 발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나타난 큰 문제는 없으나 시장에 독점이 발생하지 않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모니터링 중임

【뉴미디어 시청 점유율 산정】

- 새롭게 나타난 방송 플랫폼의 시청 점유율 산정과 관련하여, 이는 방송사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재 시청률 조사기구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 상의 시청 점유율 산정 방식을 연구·개발하고 있음

【지상파TV 재송신료 분쟁】

- 공공채널과 플랫폼 사업자 간 논쟁은 콘텐츠와 플랫폼 중 어느 것에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 현재 공공채널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림

- 정부의 개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없으나 향후 정부의 방침이 있을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

【망중립성 기준 공유】

- o 양국의 망중립성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원함

【UHD TV용 주파수 배분】

- o Ofcom은 3년 전에 지상파 플랫폼을 위해 300, 700MHz 대역을 배정 하였으며, 미래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700MHz 이하 대역의 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
- 이용자의 방송통신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수퍼패스트 브로드 밴드(Superfast Broadband)'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

【 방문 및 면담 사진 】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



<면담 후 선물 교환>

미국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3 13:30~14:00, MWC 전시장 내 면담장
- 면담자 : 톰 휠러 FCC위원장, 로저 셔먼 무선국장 등

< FCC 개요 >

- 1934년 6월 19일,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에 따라 설립, 방송과 유선 통신의 규제 총괄
- 주요 직무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총괄
 - 소유제한 등 시장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
 - 방송통신 사업자 허가 및 감독
 - 주파수 배분 및 할당, 관리
 - 방송편성 및 내용 규제
 -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명령(벌금 부과, 면허 취소 등)
 - ITU, OECD 등 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

○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망 중립성 관련 논의 상황, 트래픽 관리 정책과 관련 분쟁 해결,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제도 등을 질의
- 톰 휠러 위원장은 최근 FCC 내에서 채택된 망 중립성 원칙, 산업적 가치를 중시하는 트래픽 관리 정책, 트래픽 관련 분쟁 해결에 좋은 참고가 될 만한 한국의 사례들, '16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제도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망 중립성 관련 논의 상황】

- 최근 위원회 내에서 찬성 3, 반대 2 표결로 망 중립성 원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화당에서 반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임

- 빠른 시일 내로 망 중립성 원칙 전문을 웹사이트에 공표할 예정
- 원칙의 핵심 내용은 8쪽 분량이지만 상세 설명은 300쪽에 달하며,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우리의 취지와 원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

【망 트래픽 관리 정책】

- o FCC에도 한국 방통위와 같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Rational Traffic Management)’라는 규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때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 사업자 스스로가 네트워크 운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슈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
- 이와 같이 FCC는 기술적 가치를 중시하다 산업적 가치가 경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트래픽 발생 관련 분쟁 해결】

- o 한국은 높은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자랑하는 만큼 한국의 사례를 학습한다면 트래픽 관련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 FCC의 경우 개방성 원칙의 확립, 네트워크 투자 촉진 등을 통해 통신 사업자를 규제하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제도】

-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 도입과 관련하여 방송사들이 정부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동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에 추가적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16년 1분기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리라 생각
- 주파수 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방송사의 주파수를 구매하여 높은 가격으로 이동통신사에 판매 및 재할당한 예*가 있으며, 이는 방송사가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 FCC의 AWS-3 대역 경매(AWS-3 Auction)에서 65 MHz 대역의 주파수를 450억 달러(약 49조 9,000억 원)에 판매한 경우가 있음

【주파수 생성 문제】

- 방통위의 입장과 동일하게 다른 대역의 주파수 생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있는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 중

【빅 데이터 활용】

- 빅 데이터를 네트워크 생성에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자산이 생성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도 발생
- FCC는 두 가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균형 확보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KCC 위원장님의 견해와 동일

【지상파TV 재송신료 분쟁】

- FCC도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적절한 재송신료 산정 등 해결 방안을 마련 중
 - 다만 FCC에게 재송신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 적음
 - 재송신료 분쟁의 심화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FCC와 美 의회는 통신법의 개정을 고려하는 등 해결 방안 모색 중

【한국의 방송통신 시장】

- 한국은 높은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달성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여러 선례를 남기고 있어 많은 점을 배우고자 함
 - FCC도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개방된 인터넷 세계 구축을 추진 중

【 면담 사진 】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



<면담 후 선물 교환>

FCC Open Internet Rules

- Implements the principle that neither government nor private actors should prevent the public from accessing lawful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 NO “Regulation of the Internet”
 - NO utility-style regulation
 - NO rate regulation
 - NO tariffing
 - NO network unbundling
 - NO regulation of technical operating requirements
- Prohibits blocking, throttling and paid prioritization
- Mobile treated as full participant in Internet ecosystem
 - 55% of U.S. access to Internet from mobile
- Asserts jurisdiction over last mile interconnection
 - No specific regulation in Order – judgment test: what is “just and reasonable”
- Require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edge providers
-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exceptions
- NO regulation of services not providing general Internet access (e.g, VoIP, energy monitoring)
- NO new taxes or fees



멕시코 연방방송통신청(IFT) 상임위원 면담

- 일시 /장소 : '15.3.3 17:30~18:00, MWC 전시장 내 면담장
- 면담자 : 페르난도 보르존 위원, 엘리자베스 빼냐 등

< IFT 개요 >

- 멕시코 연방방송통신청(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IFT)은 2013년 6월 비준된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연방통신위원회(Comision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COFETEL)의 후신으로 설립된 방송통신 시장 규제 기구
- IFT의 멕시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 서비스 혁신 장벽 철폐, 방송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통신용 주파수와 네트워크의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3년에 통과된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법에 의하면 연방방송통신청(IFT)은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자산의 강제적 매각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외 독과점 예방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IFT의 공정시장 관련 정책, 멕시코의 재송신료 분쟁, 주파수 배분 문제 등을 질의
- 페르난도 보르존 위원은 재산매각 명령 등 공정시장 유지 권한을 가진 IFT,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의무 제공(Must-offer) 정책,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배분된 700MHz 주파수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공정시장 확립】

- IFT는 '13년 헌법 개정으로 조직이 재개편 되었으며 방송통신의 공정경쟁을 확립할 헌법상의 권한이 있음
 - 50% 이상 시장을 독점한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재산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음. 사례로서 아메리칸 모바일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초과하여 제재 조치를 시행
 - 현재 IFT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흡할 경우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
 - 단, 재산 매각 등의 강력한 조치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

【개인정보 보호 이슈】

- 멕시코에서는 IFT가 아닌 IFAI(Instituto Federal de Acceso a la Informacion y Proteccion de Datos, 연방정보보호기구)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다루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지상파TV 재송신료 분쟁】

- 멕시코에서도 지상파-유료 방송사 간 재송신료 분쟁이 있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 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 이와 반대로 유료 방송사도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송신해야함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Must Carry)
 - 현실적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강력히 추진 중

【주파수 배분 문제】

- 멕시코는 방송사의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배분 하였으며, 향후 민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주파수 배분 방안을 연구할 계획

【 면담 사진 】



<양국 방송정책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



<면담 후 선물 교환>

퀄컴 폴 제이콥스 회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4 11:00~11:30, MWC 전시장 내 퀄컴 부스
- 면담자 : 폴 제이콥스 회장 등

< 퀄컴 개요 >

- 본사 : 미국 샌디에고(San Diego)
- 설립 : 1985년
- 회장 : Dr. Paul E. Jacobs
- 매출 : 28억불('14년)
- 주요사업 : 이동통신기술 라이선싱,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 규모 : 전 세계 198개국 31,300여 명
 - 처음 6명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이었으나, 1995년 한국정부가 디지털 이동전화 표준으로 CDMA를 채택하면서 급격히 성장
 - 1989년 CDMA 방식의 통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동통신 관련 분야에서 5만여 개의 특허를 보유. 연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

□ 세부 면담내용

【퀄컴-한국 기업간 협력】

- 퀄컴은 삼성, LG 등 한국의 가전 및 통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음
 - 한국은 이동통신 기술 발전이 국가의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 기술과 경제성장 간의 시너지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 *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 결과 미국, 중국, 독일, 인도의 경우 2~4% 정도
 - 퀄컴은 한국의 대기업 외의 스타트업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 중이며, 한국이 새로운 네트워크 체계 및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는 시장인 만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랍

【향후 성장전략】

- 향후에는 현재의 통신 사업 외에 의료 사업 분야 진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정부 및 기업과는 의료, 스마트시티, 자동차 등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
 - '18년에 개최될 평창올림픽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생생한 경기 관람, 5G 기술 등 한국의 앞선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좋은 기회
 - 한국의 KT와는 공공안전 및 재난망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

【개인정보보호 방안】

- 이동통신 분야 전송 체계를 4G에서 5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암호화 및 인증 절차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며, 퀄컴의 기업 및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 향후에도 퀄컴이 기술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도 큰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삼성, LG 등 한국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상생해 나가기를 기대함

【 면담 사진 】



<퀄컴 회장 면담 - 퀄컴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현황 등 정보 공유, 향후 통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화웨이 데이비드 왕 부사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4 11:30~12:00, MWC 전시장 내 화웨이 부스
- 면담자 : 데이비드 왕 부사장 등

< 화웨이 개요 >

- 현황
 - 창립년도 : 1987년
 - 본사 : 중국 선전(Shenzhen, 深圳)
 - 창립자 : 런 정페이(Ren Zhengfei, 任正非)
 - 비상장 기업 : 종업원 지주제도(ESOP)
 - 운영 직원 수 : 150,000명('13년 12월 기준)
 - 매출액 : USD 39.4 billion('13년 회계년도 기준)
 - 연구개발(R&D)비 : USD 5.1 billion('13년 기준)
- 주요활동
 - 화웨이 해외 최초의 대규모 연구개발(R&D)센터 인도 방갈로르에 건설
 - 영국의 BT(브리티시 텔레콤)이 추진한 '21세기 네트워크'사업 구축 벤더로 선정
 - 보다폰(Vodafone)선정 글로벌 공급자 상(the Global Supplier Award) 수상
 - 세계 최다 국제특허 출원
 - 세계 최초 상용 LTE네트워크 노르웨이에 구축

□ 세부 면담내용

【화웨이-한국 기업간 협력】

- 화웨이는 한국의 기술 발전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한국의 이동통신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글로벌 시대에 하나의 기업이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화웨이는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표어로 업계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R&D 분야 투자 현황 및 계획】

- 화웨이는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고의 상품과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함
 -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각지에 R&D 시설을 운영 중
 - R&D 분야는 장기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웨이는 지난 10년간 총 250억 달러(약 27조 원)를 투자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혁신과 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 화웨이가 향후에도 더욱 훌륭한 기술을 선보여 괄목할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소비자 중심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대기업 및 스타트업들과의 원활한 기술 분야 협업을 위해 방통위도 협조하겠습니다

【 면담 사진 】



<화웨이 부사장 면담 - 화웨이의 글로벌 진출 전략 및 비전,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한국 기업과의 협력 등 논의>

이동통신국제전시회(MWC) 2015 참관

□ 일시 /장소 : '15.3.3~4 스페인 바르셀로나(Fira Gran Via in Barcelona)

□ 주요 내용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대표단은 KOTRA 한국관, KT, 노키아, SKT, 퀄컴, 삼성전자, LG 전자, 에릭슨, 화웨이 등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기업의 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해 각사의 최신 이동통신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체험하는 등 첨단 방송통신 기술 동향을 파악
- 아울러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 CEO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청취하고, 퀄컴의 폴 제이콥스 회장과 화웨이의 데이비드 왕 부사장 등 해외 기업 경영진을 면담하여 국가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

【미국, 멕시코 규제기관 고위 인사 면담】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톰 윌러 위원장, 멕시코 연방방송통신청(IFT)의 페르난도 보르존 상임위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이슈, IFT의 독과점 관련 제재권한 및 규제방향, 주파수 정책, 사물인터넷(IOT),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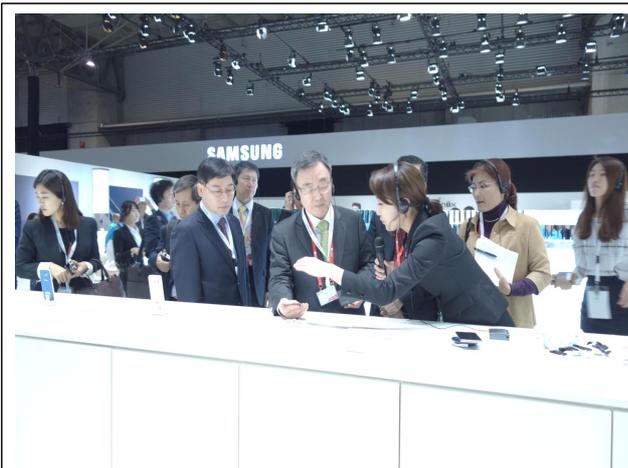
【 부스 방문 사진 - 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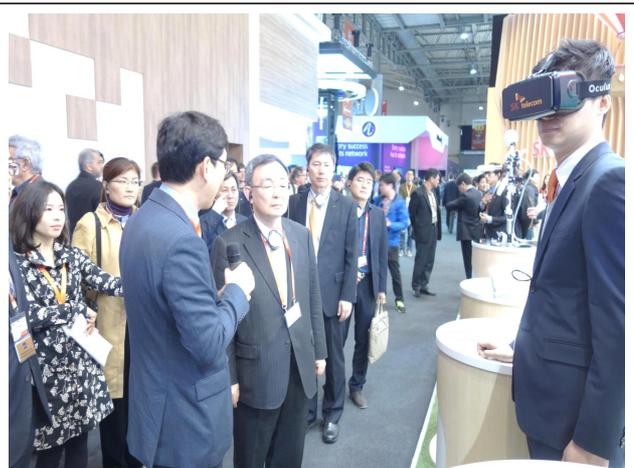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KOTRA 한국관>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LG전자>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삼성전자>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S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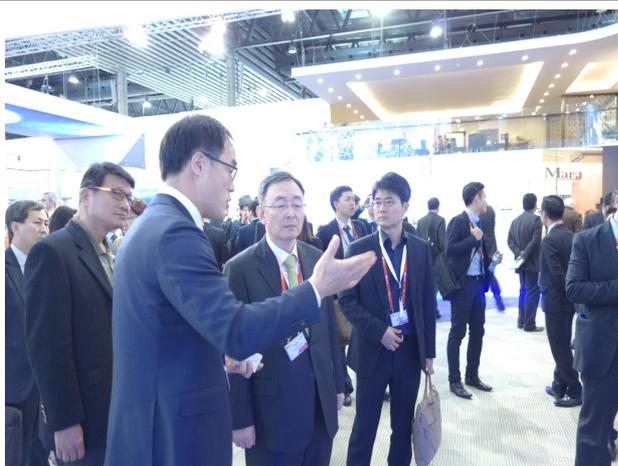
【 부스 방문 사진 - Ⅱ 】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KT>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퀄컴>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화웨이>



<국내외 기업 부스 방문 - 노키아>

스페인 공영 방송사 RTVE 사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5 09:30~10:15, RTVE 내 회의실
- 면담자 : 호세 안토니오 쾀체스 대표 등

< RTVE 개요 >

- 설립 일 : 1956년 설립된 공영방송사(스페인 최대 방송 사업자)
- 방송사 규모 : 예산은 약 €941만(약 1조 1,700억 원), 직원은 약 6,300명
- 운영채널 : 총 6개의 TV 채널과 6개의 라디오 채널 보유
 - 종합편성 : 2개(TVE 1, TVE 2), 테마채널 3개(Canal 24, TDP, Clan TVE)
 - 국제방송 : TVE International(전 세계 방송)
- 시청률 : RTVE 그룹의 TVE1 시청률은 약 14%로 시청 점유율 1위
- 스페인 RTVE는 공영 방송사이자 스페인 최대의 방송 사업자로, 총 9개의 TV 채널과 6개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44년 설립된 라디오 사업자 RNE와 '56년 설립된 TV사업자 TVE가 '65년에 통합 출범한 국영 방송기구가 舊 RTVE임
 - 舊 RTVE는 '80년 독립기구로 분리되었으나, 상업 방송 출범 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산업지주회사 편입을 거쳐 '07년 전체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는 현행 공영 방송으로 개편

□ 세부 면담내용

- * 아리랑TV-RTVE 간 업무상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한-스페인 방송 분야 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TVE 방문(MoU 내용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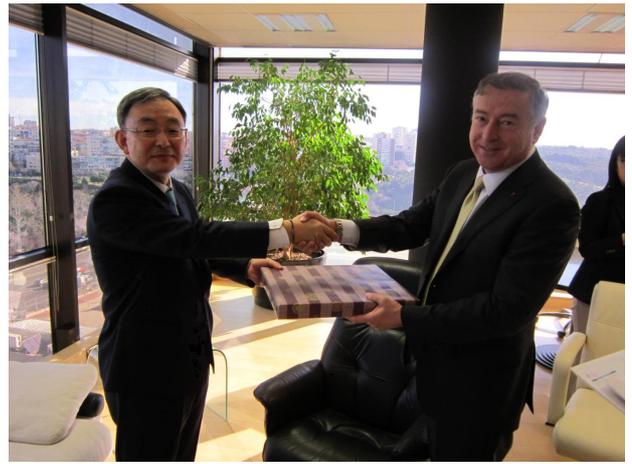
【한-스페인 방송 협력】

- RTVE는 아리랑TV 등 한국측 방송 분야 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
 - 본 방송사가 가진 남미를 비롯한 스페인어권 시장에 대하여 높은 접근성이 한국의 발전된 ICT 기술과 결합하여 콘텐츠 유통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
 - 향후에 RTVE-아리랑TV 간 공동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협조를 이어 나가겠으며, KBS 등 다른 한국 방송사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있음

【 방문 및 면담 사진 】



<양국간 방송 분야 협력 논의>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후 기념 사진>



<RTVE 시설 견학>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차관 면담

- 일시 /장소 : '15.3.5 12:00~13:00, 산업에너지관광부 내 회의실
- 면담자 : 빅토르 카보 소텔로 이반네즈 마틴 차관 등

< 산업에너지관광부 개요 >

- 스페인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에너지관광부는 총리 산하 17개 정부 기관 가운데 하나로, '31년 농업무역산업부 설립 이후 총 12회의 개편을 거쳐 '04년에 현행 산업에너지관광부가 출범했으며, 전신기구는 과학기술부임
- 산업 발전, 무역 정책, 중소기업, 에너지/광업, 관광, 통신, 정보화 사회 관련 정책 입안 및 수행을 담당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규제기관 간 업무조정, 한-스페인 방송교류 지원, 주파수 배분 문제, 공정시장 질서 구축 방안 등을 질의
- 빅토르 카보 소텔로 이반네즈 마틴 차관은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 (CNMC)가 담당 중인 공정 경쟁 업무,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는 양국 간 방송 교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배정될 계획인 700MHz 주파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시장 지배력 확산에 대한 경계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규제 기관 간 업무조정】

- EU 규정에 맞춰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며, 공정 경쟁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CNMC*를 별도로 조직

*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 Comisio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 : 스페인 경제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한-스페인 방송교류 지원】

- 스페인 재경부가 RTVE의 최대주주인 만큼 정부와 RTVE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 관련된 라디오, TV, 주파수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 기관이 한-스페인 방송 교류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음

【주파수 배분 문제】

- 주파수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매우 시사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
 - 4월 초부터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공백이 생긴 800MHz 대역 주파수를 4G 이동통신 주파수로 배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
 - 700MHz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에 배정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방송과 통신 업계 간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번복하지 않을 것
 - 주파수 배정에 따라 원활한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UHD 방송 계획】

- 스페인에서는 현재 UHD 방송 송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정책적으로 지상파의 HD 방송 전환에 집중하는 중
 - UHD 방송 기술에 관한 테스트는 진행 중이며, 4~5개의 HDTV 방송사를 설립할 예정

【스페인 방송통신 시장 특성】

- 스페인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유선, 무선, 인터넷의 패키지 상품의 인기가 높음

【방송통신 규제 기준】

- EU의 관련 규정이 스페인의 방송통신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구성된 EU 집행위가 방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음
 - EU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이 유럽의 기업 및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리라 생각하고 적극 지지할 예정

【공정시장 경제 구축】

- 본 기관은 패키지 상품 등을 이용한 시장 지배력 확산을 유심히 관찰 중
 - 그 사례로서 Vodafone, Orange, Telefonica 등의 다국적 기업이 다른 통신사 및 케이블 방송사를 매입하는 행위를 들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EU 공정거래위원회, 스페인 CNMC 등 다른 기관도 규제를 검토 중임

【 방문 및 면담 사진 】



<양국간 방송 분야 협력 논의 - I>



<양국간 방송 분야 협력 논의 - II>



<면담 후 기념 사진>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 위원장 면담

- 일시 /장소 : '15.3.6 16:30~17:30, CSA 내 회의실
- 면담자 : 올리비에 쉬라텍 위원장 등

< CSA 개요 >

- 1989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 제 89-25호에 근거하여 국민의 시청각 권리 및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랑스의 방송 분야 독립규제기관
- 주요 직무
 - 미디어 전반의 규제 책정
 - 주파수 할당 포함한 방송용 전파의 관리, 운용
 - 방송 사업자 인허가, 민영 방송 면허 교부
 - 프로그램 규제
 - 각종 의무 정한 협약 체결
 - 방송 사업자의 법·규칙 준수 여부 감시 및 위반 사업자 규제
 - 방송 관련 법안 자문

0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규제기관 간 업무조율,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700MHz 주파수 배정, 공영방송의 수신료-광고수입 비중, 통합 시청 점유율 조사 등을 질의
- 올리비에 쉬라텍 위원장은 기관 간 대화와 공식 문서 등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조율, 신기술 개발과 콘텐츠 유통 경로 다양화로 해결할 방송 분야 주파수 감소 문제, 수신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영방송 수입구조,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시간 인터넷 시청률 측정 도구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규제기관 간 업무조율】

-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CSA가 IPTV, OTT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

- CSA의 주요역할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결과물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 제정이며, 프랑스 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우정청(ARCEP,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등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과의 협조를 중시
- 방송통신의 융합 현상에 따라 업무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으나, 기관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공식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협력체제 구축

【700MHz 주파수 배정】

- o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최종적으로 이동통신 업계에 해당 주파수 대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외의 주파수 배정 작업은 '19년도까지 꾸준히 진행될 예정
- 700MHz 대역 판매의 결과 방송 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문제는 압축전파와 같은 신기술 개발 및 방송 콘텐츠 유통 경로 다양화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

【방송의 디지털 전환】

- o 방송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방송 플랫폼 형성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음

-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잔여 주파수 배정 논란은 전파가 국가에 의해 무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
- 프랑스에서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약 20억 유로(약 2조 4000억원)의 국고 수입을 거둠

【공영방송 수신료】

- o 공영 방송사 재원의 90%는 수신료, 10%는 광고입
 - '09년도에 시행된 방송 개혁안에는 공영방송사의 20시 이후 저녁 시간대 광고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김
 - 수신료는 1대 이상 TV가 있는 가구 단위로 부과되며 연간 약 136유로
 - 프랑스의 TV 보유 가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 따라, TV 외에 PC, 테블릿,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매체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

【통합 시청 점유율 조사】

- o 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시청 점유율 조사는 중요한 문제
 - 현재 사실상 독점 상태로 민간 기업인 '미디어 메트리(Mediametrie)'가 각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시청 점유율 조사를 실시
 - 라디오,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 VOD의 시청 점유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가 개발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으며, 인터넷 실시간 시청률 측정을 위한 도구는 아직 없음
- 각 방송사에서도 보유 콘텐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클릭수 측정 등 자체적인 시청률 조사 방법 도입 중
-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통합 시청률 조사 방식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

【방통위-CSA 협력 제안】

- o 방통위와 CSA는 유사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통된 현안에 직면함
 - 넓은 시야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실무 차원의 구체적 협력이 있기를 바램
 - 가까운 시일 내에 CSA가 작성한 양측의 협력 문안을 방통위에 송부할 것이며,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완성하기를 원함
- o 방통위원장은 CSA 위원장의 MoU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만간 결과물로 맺어지길 희망

【 방문 및 면담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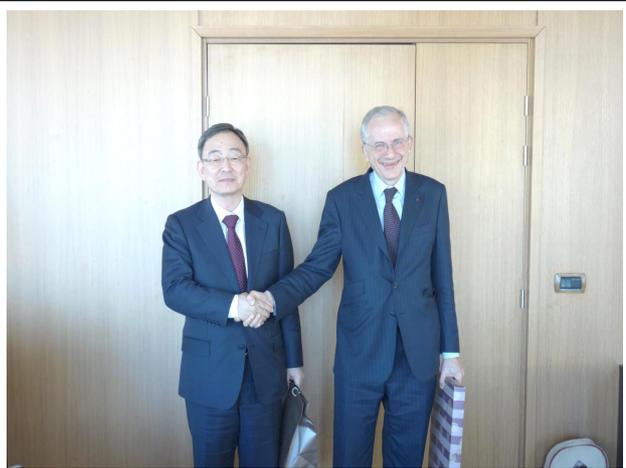
<양국간 방송 분야 협력 논의 - I>



<양국간 방송 분야 협력 논의 - II>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후 기념 사진>

2015. 3. 8.(일)

 방송통신위원회	<h1>보도자료</h1>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5년 3월 8일(일)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홍보협력담당관 이선아 주무관 (☎2110-1334) say@kcc.go.kr

최성준 위원장, 영·미·프 세계 3大 규제기관장과 글로벌 동반자 관계 강화 의지 다져

- 프랑스 CSA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MOU 체결키로” 합의 -

- ‘MWC 2015’ 기간 동안 글로벌 ICT 비전 공유 및
우리 방송의 유럽진출 지원행보 “결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부터 영국의 Ofcom과 미국의 FCC, 프랑스의 CSA 위원장 등 세계 3대 규제기관장을 잇달아 만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기술진보로 인한 방송통신 서비스 진화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 위원장과 프랑스의 CSA 위원장은 양국 간의 협력강화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MOU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곧바로 이를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 FCC : 미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Ofcom : 영국 Office of Communications, 방송통신규제위원회
CSA : 프랑스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시청각고등평의회

먼저, 최 위원장은 영국 Ofcom 패트리샤 호지슨(Patricia Hudgson)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청점유율 산정, 재송신 이슈, UHD TV와 주파수 배분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호지슨 위원장은 현재 영국에서도 시청률 조사기구가 태블릿·스마트폰 등 새로운 플랫폼 상의 시청점유율까지 포함한 시청률 산정 방식을 연구·개발 중이라며 이 분야의 정보 교류를 희망했다.

스페인 'MWC 2015' 현장에서 이루어진 미국 FCC 톰 휠러(Tom Wheeler)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FCC에서 의결된 '망중립성 원칙'을 비롯해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 등 FCC의 최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서 톰 휠러 위원장은 한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ICT 발전모델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 양 기관장은 정책 공조 및 정보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위원장은 연이어 프랑스 CSA를 방문, 올리비에 쉬라멕(Olivier Schrameck) 위원장과 만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와, 최근 프랑스 정부의 700MHz 경매 결정 내용 및 주파수 배분 이슈, 통합시청률 조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쉬라멕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좋은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적인 협력 결과를 얻기 위해 실무차원의 협의창구 개설과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MOU)을 제안했으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예산·정책결정 방식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최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15, 3.2~3.5)에 참가해 퀄컴의 폴 제이콥스(Paul Jacobs) 회장, 화웨이의 데이비드 왕(David Wang) 부사장 등 해외 우수기업의 임원과 국내 참가기업 CEO 등을 만나 최신 기술동향과 산업계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의 방송통신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멕시코의 IFT(Instituto de Telecomunicaciones, 연방방송통신청) 차관과도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이슈와 IFT의 독과점 관련 제재권한 및 규제방향,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영국 최대 위성방송사업자인 SKY UK(BSkyB, 영국 위성방송)와 무료 디지털 위성방송사업자인 Freesat을 방문하여 아리랑 TV 등 우리방송의 채널송출을 돕고, 아리랑TV와 스페인 공영방송사 RTVE(Radio y Television Espanola)와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위한 MoU 체결식에 참가하여 우리 방송의 유럽진출을 지원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부처인 스페인의 산업에너지관광부를 방문하여 우리 방송의 스페인 및 스페인어권 중남미 진출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스페인은 중남미 방송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스페인뿐 아니라 스페인어권인 5억 중남미 시청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끝.

스페인 RADIO Y TELEVISION ESPAÑOLA (RTVE)와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ARIRANG TV)와의 MOU (국문 요약본)

스페인 공영방송사 RTVE와 대한민국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이하 양측 이라 한다) 양국 간 방송을 통한 문화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방송 콘텐츠의 교류

조항1

양측은 계약 및 저작권 제한에 영향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양측의 문화, 교육, 예능, 뉴스 및 기타 분야의 방송 콘텐츠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콘텐츠 상호 교환 대상의 프로그램은 방송 전 모든 로열티가 이미 지급 되어야 하며 교환된 프로그램으로 방송 시 발생하는 로열티는 해당 국가에서 방송을 한 방송사가 지급한다.

조항2

프로그램 교환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개별 건수에 따라 양측의 협의 하에 유상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다.

조항3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된 방송콘텐츠는 제공받은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콘텐츠에 대한 수정 또는 대체는 양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공된 콘텐츠는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프로그램 공동제작

조항4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추진한다.

특정 이벤트, 축제, 대회의 참여

조항5

양측은 양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행사, 축제 및 대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인적교류

조항6

전문기술의 교환 및 교류를 목표로, 양측은 인력교류와 기술 훈련을 제공 할 수 있다. 인력교류의 조건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협조

조항7

양측은 상대측 국가 방문 시, 정보 제공과 기타 조직적 협조 등을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일반조건

조항8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2년간 유효하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사 통보 시 연장한다.

본 양해각서는 영어를 원본으로 하고, 각 2통씩 작성된다.

본 실행계획은 2015년 3월 5일 체결한다.

RTVE

José Antonio Sánchez Domínguez
(President)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방석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BETWEEN

RADIO Y TELEVISION ESPAÑOLA (RTVE)

AND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ARIRANG TV)

The Spanish public television called RTVE and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Arirang TV)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hereby express their intention to develop and strengthen mutual friendly relation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with the aim of leading to grea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Exchange of Programmes

Article 1

The parties will exchange such television programmes in the cultural, educational, scientific, agricultural, entertainment, sports and news and such other possible fields as are of mutual interest subject to contractual and copyright limitations, if and when the parties hold the necessary rights.

The Party providing a programme under this agreement will advise the other of all royalties, fees and conditions which the other must satisfy before broadcasting the programme.

Each Party will bear royalties or any other costs arising from its own broadcast activity.

TV programmes to be exchanged will be selected by comm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nditions to be applied wi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contract.

Article 2

Exchange of Programmes will in principle be on the gratis basis. In the case of such exchange, any commercial agreement existing between the Parties and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agents or distributor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case of exchange on a non-gratis basis,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arties through mutual agreement on each individual occasion.

Article 3

Programmes provided either gratis or non-gratis will be utilized by the receiving Party according to its own needs. Any change or alteration to the Programm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diting, dubbing or sub-titling, shall be subject to prior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The aim of such discussions shall be to ensure that no alteration or distortions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rogrammes occur.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supply nor allow any third party to use the Programmes supplied for broadcast or any other purpose,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supplying Party.

Both parties will specify in a separate contract the detailed conditions and ter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quantity and names of the programmes, fees, term, the type of use, the granted territory, etc.

Co-production of programmes

Article 4

Both Parties will explore co-production opportunities related to matters of mutual interest.

Participation in Significant Events, Festivals, Competitions

Article 5

Both Parties will inform each other of significant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events, festivals and competition taking place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encourage mutual participation.

Exchange of Personnel/Training

Article 6

With the aim of exchanging expertise, the Parties may mutually exchange personnel and provide training to technical staff. The purpose, duration and conditions of the personnel exchange and training will be decided upon separately by mutual discussion.

Co-ordination

Article 7

Both Parties will endeavour to provide facilities and general assistance (including supply of information and other organisation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the visiting Party within the limits of capacity.

General Conditions

Article 8

Any change or alteration to this MOU can be made only by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is MOU will be vali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f signature. The agreement will be renewable when both parties express by writing their intention of renewing it at least three month before of the expiring date.

Article 9

Official addresses of both Parties for correspondence are:

1. RTVE

Dirección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Avda. Radio y Televisión,4

Edificio Prado del Rey

28223 Pozuelo de Alarcón

Madrid, Spain

Tele: +34 91 581 54 04

Fax: +34 91 581 54 09

Arirang Tower 2351 Nambusunhwan-ro,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868, Korea

Tele: +82 2 3475 5349

Fax: +82 2 3475 5306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signed on 5th March, 2015 in two copies in English and each party retains one of the signed copies.

For RTVE

For Arirang TV

(Mr. José Antonio Sánchez Domínguez)

(Mr. Bang Suk Ho)

President

Chief Executive Officer

RTVE, Spain

ArirangTV, Korea